

보도	2024.10.23.(수) 조간	배포	2024.10.22.(화)
----	-------------------	----	----------------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	책임자	국 장	백규정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안태승	(02-3145-7130)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제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기철	(02-3495-9300)
		담당자	팀 장	장재환	(02-3495-9310)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화이트해커를 통한 제2금융권 모의해킹 훈련 실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과 함께 10월 28일(월)부터 11월 8일(금)까지 제2금융권(증권·보험·카드)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를 통한 「블라인드* 사이버 모의해킹(공격·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 해킹일시 및 대상 금융회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실시

< 블라인드 사이버 모의해킹(공격·방어)훈련 >

- 기존의 훈련대상, 일시 및 공격내용 등을 미리 협의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도상훈련 방식과 달리,
- 훈련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불시에 화이트해커(금보원 RED IRIS팀)를 통한 실제 해킹 등을 시도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방어하는 훈련 방식

금번 훈련은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하였고, 지난 상반기(2월)에 은행업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해커의 시각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 조치함으로써 금융권의 실질적인 사이버 대응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훈련 내용은 증권·보험·카드 권역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침해사고 대응기관인 금보원이 가상의 공격자가 되어 화이트 해커(금보원 RED IRIS팀) 등을 통한 서버해킹(침투)과 디도스 공격을 시도하고,

금융회사는 가상의 공격자(금보원)에 맞서 공격을 탐지·방어하고, 디도스 공격의 경우 비상대응센터로 트래픽을 전환하여 업무연속성을 유지하는 일련의 대응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금번에는 최근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의 일환으로 금융권이 도입하게 될 “생성형AI” 관련 보안대책 점검도 훈련에 포함하여 신기술이 금융IT 환경에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4.8.13) :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금감원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불시의 외부 침입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탐지·방어 역량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며, 금보원은 이와 관련한 이행점검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사이버공격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훈련으로 금융회사의 대응·예방 체계가 강화되고, 직원들의 보안인식도 제고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내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